

{-ㄴ가}, {-나}형 어미에 대한 말뭉치 기반 연구*

안주호

(남서울대학교)

Ahn, Joooh. (2015). **A Study of the endings {-nka} type and {-na} type based on Spoken Korean Corpu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2), 133-156. This paper surveys the distribution, combining conditions and usage patterns of the {-nka} type and {-na} type endings in the corpus on spoken Korean. Currently, in Korean grammar rules, {-nka} type, {-na} type endings are explained as indicating humility and {-nkayo}, {-nayoy} endings indicate respect. Though exceptions are noted, the {-nka} type endings are supposed to be added to the adjective stems with a coda. And {-na} type endings are added to the verb stem. But spoken Korean language is different than the written corpus.

In spoken Korean, {-na} type endings were employed 5823 times compared to 791 times for the {-nka} type endings. In spoken Korean, there are no constrains on the combination on {-na} type endings; The {-na} type endings are added to the verb stem, prefinal endings like {-eoss-, -si-} and even adjective stem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na} type endings and {-nka} type endings have been integrated into {-na} type endings.

주제어(Key Words): 분포(the distribution), 결합계약(combining conditions), 사용양상(usage patterns), {-ㄴ가}형 어미({-nka} type endings), {-나}형 어미({-na} type endings), 구어말뭉치(Korean Spoken Language Corpus), 사용빈도수(frequency of usage)

1. 문제제기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변화는 구어에서 빠른 진행을 보인다. 그런데 언어변화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기술(記述)하기가 어려워서 언어기술과 실제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2014K2A1A2048045]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언어사용 사이에서는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괴리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해라체 종결어미이다.¹⁾ 해라체 종결어미 중 서술형인 {-다}는 문어에서 격식체로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나 지금 간다. 퇴근한다.” 등과 같이 구어에서 일상적으로도 사용된다. 이와 유사한 예가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인데, 현재 언중들의 언어 사용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언중들의 언어 사용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국어원의 서비스 중 하나인 <온라인 가나다(구, 가나다 전화)>에는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와 관련된 질문이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다.

- (1) 동사인 ‘먹다 - 먹나요’, ‘보다 - 보나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예쁘다 - 예쁜가요, 쉽다 - 쉬운가요’를 쓰는 반면, ‘예쁘나요, 쉽나요, 어렵나요’라고들 많이 말을 해서 혼란스럽다. ‘A-나요’는 비표준어인가?
- (2) ‘바쁘신가요, 바쁘시나요’,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하나요’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 (3) ‘그런가요, 그러나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 (4) ①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②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요?
③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①은 문어적 느낌이 나고, ③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②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가?

(1~4)의 질문을 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언중들은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어 기술(記述)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ㄴ가}형, {-나}형 어미에 대해 결합분포와 사용 양상과 기능 등을 실제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선행연구 및 사전에서의 기술을 검토하고,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구어말뭉치를 중심으로 형태결합 정보, 의미기능, 그리고 사용빈도수를 알아보도록 한다.

2. 선행연구

2.1 사전에서의 기술

(1)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ㄴ가}형, {-나}형 어미의 관계를 상보적 분포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1) 구어/구어체, 문어/문어체에 정립에 대한 연구는 장경현(2003)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는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쓰인다. 이러한 종결 어미 {-나}의 문법 정보를 고려하면, 형용사 '예쁘다, 쉽다, 어렵다'가 '예뻤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와 같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예쁘나(요), 쉽나(요), 어렵나(요)와 같이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 (2') 형용사 어간 뒤에는 어미 '-ㄴ가'가 붙어 쓰이는데, 이러한 쓰임에 따라, "바쁘신가요?"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보조 용언인 '만하다'는 형용사로, 어간 '만하-' 뒤에 어미 '-ㄴ가'가 붙어 "믿을 만한가요?"와 같이 쓰인다.
- (3') '그런가(요)?', '그러나(요)?'의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런가(요)'는 형용사 '그렇다'의 어간 '그렇-' 뒤에 어미 '-은가'가 붙은 활용형이고, '그러나(요)'는 동사 '그러다'의 어간 '그러-' 뒤에 어미 '-나'가 붙은 활용형이다.
- (4') 모두 문제가 없다. '있는가요'는 '있다'의 어간에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는가'가 붙고 거기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요'가 붙는 형태이다. (온라인 가나다, 국립국어원)

(1'-3')의 답변에서는 형용사 어간 뒤에는 {-ㄴ가}형 어미를, 동사 어간이나 어미 {-시-, -었-, -겠-} 뒤에는 {-나}형 어미가 결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의 답변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 뒤에서는 {-나}형 어미가 사용된다고 했지만, (2')에서는 '바쁘신가요'에서 형용사 어간 다음이므로 {-ㄴ가요}가 결합된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바쁘신가요'는 {바쁘-시-ㄴ가요}로 분석되어, 선어말어미 {-시-} 다음에 {-ㄴ가요}가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용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온라인 가나다>에서의 설명조차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현재 {-ㄴ가}, {-나}형 어미의 사용 양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ㄴ가}, {-나}형 어미는 상대높임법과 관계가 있다. 현재 상대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있는데,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를,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를 두고 있다. 하게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는 방식으로 {-는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ㄴ가요}, {-나요}는 비격식체 중에서 해요체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ㄴ가}형 어미와 {-나} 어미는 하게체뿐만 아니라 구어에서 해라체 종결어미의 하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형편이다. {-ㄴ가}, {-나}형 어미에 대해 한글학회 <새우리말큰사전(1986)>에서는 (5)와 같이 기술해 놓고 있다.

(5)a. -는가 어미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현재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 스스로 의심이나 '하게' 할 자리에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 (준말 -나²) → -ㄴ가, -은가

b. -나 어미

받침없는 형용사의 어간이나 체언에 붙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현재 시칭과 관련하여 쓰임 → -고, -지, -은가, -는가, -인가

c. -나² 어미

-는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나? → -노² <새우리말큰사전(1986)>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고}형 어미와 {-나}형 어미 중에서 {-고가요}와 {-나요}는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으며, {-고}, {-는가}와 {-나}만을 표제어로 등재해 놓고 있다. 그리고 {-는가}를 {-나²}의 준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²}에서 {-는가}와의 관련성을 언급해 놓고 {-노²}를 찾아보도록 했다. 또한 {-고}는 {-고, -지, 은가, -는가, -인가}와 관련성을 언급하고, {-고}와 {-노²}는 {-고}와 {-노²}의 옛말투라고 설명했는데,²⁾ 이 사전에서는 동사에 결합하고 하계체로 쓰이는 {-는가}를 {-나²}형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기술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도 {-고가요}와 {-나요}는 표제어로 따로 등재해 놓지 않고, {-고}형 어미와 {-나} 어미에 대해서만 설명해 놓고 있다.

- (6)a. -는가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하계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주로 ‘-는가 하다’, ‘-는가 싶다’, ‘-는가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b. -나¹² 「어미」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하계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표준국어대사전(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가}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하계체로 쓰인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나}에 대해서는 하계체 의문형 어미로 쓰인다고 했다.³⁾

이렇게 <새우리말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고가요}와 {-나요} 등을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지만, <연세한국어사전(1998)>에서는 {-고}형, {-나}형 어미 모두를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2) {-고}에 대해서는 {-고}의 옛말투 또는 점잖은 말투로 받침없는 형용사의 어간이나 체언에 붙어 무엇임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끝맺는 어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노2}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붙은 의문형 종지형어미의 한가지로서 반말에 가까운 계층의 뜻을 지니며, 특히 가까운 사이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3) 이외에도 {-나¹³}을 두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의 용언 뒤에 쓰여)) 해라할 자리에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경남)”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7)a. {-는가} 하계체의 종결 어미 I ①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뜻을 나타냄. ②(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뜻보다는) 스스로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냄. ③(시제나 화계가 중화된 것으로) 논문이나 신문 같은 글말에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뜻을 나타냄. ④(수사의문문에 쓰이어)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냄. ⑤('는가 -는가'의 꼴로 쓰이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고르라고 묻는 뜻을 나타냄. II ① ('는가 보다/싶다'의 꼴로 쓰이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냄. ②('는가 하면'의 꼴로 쓰이어) '그런 한편, 그런 반면'의 뜻을 나타냄. '-는가'는 동사와 '있다, 없다'의 어간과 '-았-, -겠-' 뒤에 '-ㄴ가'는 받침 없는 형용사와 '이다, 계시다'의 어간 뒤에, '-은가'는 받침 있는 형용사의 어간 뒤에 쓰임.
- b. {-는가요} 해요체의 종결어미 ①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뜻을 나타냄. ②(수사의문문에 쓰이어)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냄. ③ ('는가 -는가'의 꼴로 쓰이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골라 묻는 뜻을 나타냄. '-는가요'는 동사와 '있다, 없다'의 어간과 '-았-, -겠-' 뒤에 '-ㄴ가요'는 받침 없는 형용사와 '이다, 계시다'의 어간 뒤에, '-은가요'는 받침 있는 형용사의 어간 뒤에 쓰임.
- c. {-나6} 종결 어미 I ①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말하는 이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②(수사 의문문에 쓰이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정말 그렇지 아니함을 나타냄. II 사실 나열에 쓰임. '-는가'의 뜻. III. '-나 보다'의 꼴의 보조 용언 구성에 쓰임
 {-나} 하계체의 종결 어미. '-는가'의 뜻을 나타냄.
- d. {-나요} 해요체의 종결 어미 '-는가요'의 뜻을 나타냄. <연세 한국어사전 ((1998))>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7)과 같이 {-는가}는 물론 {-나}와 {-나요}형을 모두 표제어로 등재시켜 놓고 있다. {-ㄴ가}형 어미 중에서 {-는가}를 대표형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의 변이형인 {-은가, -ㄴ가}의 형태적 정보를 기술했다. 또한 {-는가요}는 해요체로 독립적인 종결어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7c,d)처럼 어미 {-나}와 {-나요}를 분리하여 종결어미 {-나} 역시 {-나6}과 하계체의 {-나}로 나누었다. 종결어미로 쓰인 {-나}는 청자를 상정하는 상관적 장면에서도 쓰일 수 있고, 비상관적 장면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는 (8)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8)a. {-는가} (1)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문어체나 훈장말에 쓰인다. 참고어 ㄴ가 (1), 은가2 (2)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상대방에게

- 어떤 내용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계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2) (3)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주로 의문사와 함께 쓰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수사 의문문으로 문어체나 혼잣말에 쓰인다.
- b. {-는가요} 종결 어미 (1)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해요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참고어 ㄴ가요 (1), 은가요 (1) (2)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주로 의문사와 함께 쓰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c. {-나13} 종결 어미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하여 상대에게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계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참고어 ㄴ가 (2)
- d. {-나요} 종결 어미.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하여 상대에게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해요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는가/-은가/-ㄴ가}를 포함한 {-ㄴ가}형 어미는 물론 어미 {-나}와 {-나요}도 표제어로 등재시켰다. {-는가}에는 참고어로 {-ㄴ가 (1), -은가 2 (1)}을 설명해둠으로써 이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주로 문어체나 혼잣말에 쓰이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그 일을 할 능력이 정말 내게 있는가, 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둘째, {-는가}가 구어에서 하계체로 쓰이는 경우로서 “벌써 가시는가?, 자네, 저녁은 먹었는가?” 등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는가요}는 구어체에서 해요체로 쓰이는데, “당신도 가끔은 제가 생각나는가요?”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로 의문사와 함께 쓰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를 어찌 또 믿을 수 있겠는가요?”와 같은 예를 들고 있으며, 참고어로 {-ㄴ가요(2), -은가요(2)} 등을 제시하여 이들을 이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나¹³} 역시 하계체의 종결어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네, 밥은 먹었나?, 학위는 언제 받았나?” 등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⁴⁾ {-나요}에 대해서는 해요체로, 주로 구어체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상과 같이 기술된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형태결합 정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는가, -ㄴ가, -나}만을 표제어로 올렸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가, -나}만을 표제어로 올렸으며, <연세 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4) 이외에도 {-나¹⁵}를 두어 종결 어미로서 경남 지방의 방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어미로 분류해 두었다.

전>에서는 {-는가}는 물론 {-는가요}를 모두 표제어로 올렸다.

표 1. 사전에서의 {-ㄴ가}, {-나}형 어미의 형태결합 정보

	새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동사 어간	-는가, -나	-는가, -나	-는가	-는가, -나
형용사 어간	-ㄴ가		-은가, -ㄴ가	
N+이다, 아니다	-ㄴ가		-ㄴ가	
{있다, 없다} 어 간		-는가	-는가	-는가, -나
{계시다} 어간			-ㄴ가	
-시-		-는가, -나		-는가, -나
-었-		-는가, -나	-는가	-는가, -나
-겠-		-는가, -나	-는가	-는가, -나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어간 뒤와 {있다, 없다}의 어간 뒤, 그리고 {-았-, -겠-}과 같은 선어말어미 뒤에는 {-는가}와 {-나}형 어미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계시다}와 {-시-} 뒤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 그런데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서술된 다음의 두 서적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이 실려 있다.

- (9)a. {-는가} <어미> 1.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쓴다.
- b. {-ㄴ가/-은가} <어미> 1.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볼 때 쓴다. 2. (물어보는 뜻 없이) 스스로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 쓴다. 3. 글에서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내놓을 때 쓴다. 4. (물어보는 뜻없이) 더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쓴다.
- c. {-나⁵} <어미> 1.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화자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상대방에게 격식을 갖춰 물어볼 때 쓴다.
- d. {-나요} <어미>윗사람에게 부드럽게 물어볼 때 쓴다. <이상 한국어학습자사전(2005)>
- e. -나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았-, -겠- 뒤에 붙어) 윗사람인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쓰는 표현,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나³'에 높임의 '-요¹'가 붙은 표현) '-나요'는 부드럽고 여성스럽다는 느낌을 주므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005)>

5) 이 중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나}형 어미의 형태결합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6) 3장에서는 실제 말뭉치를 바탕으로 형태결합과 빈도수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어학습자사전>에서는 {-ㄴ가}형 어미는 물론 {-ㄴ가요}형 어미도 표제어로 등재시켜 놓고 있다. {-ㄴ가/-은가}가 사용되는 경우는 “요즘 바쁘가? 내일 수미도 올 건가?” 등의 예를 제시하여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데, 존대의 ‘-요’와 결합해서 쓸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물어보는 뜻 없이 스스로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에는 “이 옷이 너무 큰가?/내가 잘못된 건가?”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글에서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내놓을 때 쓰는 경우로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의 교육 이대로 좋은 가?” 등과 같은 예를 제시하여 청자에게 질문하는 뜻은 없고, 주로 논문이나 신문 같은 글에 쓴다고 밝히고 있어 해라체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ㄴ가요/은가요}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볼 때 쓰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나⁵}에 대해서는 첫째,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화자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고 둘째, 상대방에게 격식을 갖춰 물어볼 때 쓰는 것은 “김군, 혼자 왔나?, 만약 100만원이 생긴다면 자네는 뭘 하겠나?”로 주로 남자가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하여 하계체 기능을 설명하였다. {-나요} 어미는 윗사람에게 부드럽게 물어볼 때 쓰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고장이 났나요?, 어제 파티가 즐거웠나요?” 등의 예를 들고 있으며, 주로 동사나 ‘-었-, -졌-’ 뒤에 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9e)처럼 {-나요}는 {-ㄴ가요}와 비교할 때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여성이 더 자주 사용한다는 기술이 나온다.

표 2. 사전에서의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기능에 대한 기술

	{-ㄴ가}형 어미		{-나}형 어미	
	{-ㄴ가}	{-ㄴ가요}	{-나}	{-나요}
새우리말큰사전(1986)	하계체 준말 -나 ²	×	{-는가}, {-노 ² }	×
표준국어대사전(1998)	하계체	×	하계체	×
연세 한국어사전(1999)	하계체	해요체	하계체	해요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문어체나 혼잣말 구어체 하계체	해요체	구어체 하계체	해요체
한국어학습자사전(2005)	○	○	○	○

이상 여러 사전에서의 기술을 알아보았는데, {-ㄴ가}형 어미의 준말이 {-나}형 어미라고 한 <새우리말큰사전>이 특이하며,⁷⁾ <연세 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는 {-ㄴ가}형 어미는 물론 {-ㄴ가요}형 어미와 {-나요}를 모두 독립된 어미로서 표제어로 등재시킨 점이 특이하다. 또한 {-ㄴ가}형 어미는 음운적 조건과 어간의 품사에 따라 {-는가}, {-은가}, {-ㄴ가}의 변이형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형태소라 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사전마다 {-는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결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허웅(1995), 남기심·고영근(1985/2005)의 견해와 유사하다.

2.2 개별 연구에서의 {-ㄴ가}, {-나}형 어미 연구

개별 연구에서 {-ㄴ가}, {-나}형 어미의 결합분포와 의미에 대해서 깊게 다룬 글은 거의 없고 단지 몇몇 문법서와 일반서,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다루는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먼저 한국어 문법의 초석이 되는 최현배(1984:324)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 안에 {-ㄴ가}, {-나}형 어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후 남기심·고영근(1985/2005), 허웅(1995), 이익섭·채완(1999)등에서 이들 어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박종갑(1984, 1986), 고창운(1992) 등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의 하나로 다루었다.

- (10)a. “자네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의 {가는가}는 {가나}로 줄어지기도 한다. ‘나’는 단순한 하계체 이외에 두루낮춤의 기능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요’가 붙으면 ‘가나요’가 되어 두루높임이 되기도 한다. 의문문 형태 가운데서 {-나}와 같이 두루낮춤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ㄴ가}가 있다.(남기심·고영근, 1985/2005: 350-351)
- b. {-나}와 {-는가}는 하계체 의문형 종결어미의 하나이다. (이익섭·채완, 1999:237)

(10a)처럼 남기심·고영근(1985/2005)에서는 {-ㄴ가}와 {-나}를 하계체로 보고 있으며, {-ㄴ가}는 {-나}로 줄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줄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이 들지만, 동일한 형태의 변이형으로 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형태적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살핀 허웅(1995:681)에서는 {-은가/-는가}는 의문사 없는 의문형에 쓰이는 ‘가-물음법’의 어미로서 “말할이 자신의 안으로 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회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으냐/느냐}에 비해 청자를 대우하는 정도가 약간 높아지는데, 이 어미는 청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속에 회의를 느껴 보는 형식을 취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는 동사에 쓰이는 {-느냐}와 형용사, {-이다}에 쓰이는 {-으냐}의 줄임이 합류한 어미인데, 이것은 선행어간의 품사에 제약이 없으나 대개는 동사에 쓰이는 일이 많다고 기술했다.⁸⁾

- (11)a. {-은가-요}는 형용사와 이다를, {-는가-요}는 동사를 가려잡는다. {-으시-}는 두 어미에 두루 어울릴 수 있고, {-았-, -겠-}은 {-는가-요}와 어울리고, {-더-}는 {-은가-요}와 어울린다. {-으리-}는 이 어미에 어울리지 않는다.

8) 또한 {-나}는 동사에 쓰이는 {-느냐}와 형용사, {-이다}에 쓰이는 {-으냐}의 줄임이 합류한 어미인데, 이것은 선행어간의 품사에 제약이 없으나 대개는 동사에 쓰이는 일이 많다고 기술했는데, 합류한 어미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지는 천착이 필요하다.

- b. {-나}는 동사에 쓰이는 {-느나}와 형용사, {-이다}에 쓰이는 {-으나}의 줄임이 합류한 어미인데, 이것은 씨갈래를 가려잡지 않게 되었으나 대개는 동사에 쓰이는 일이 많다. {-나}는 가-물음법에 쓰이며, {-노}가 옛말형이다.
- c. {-나-요} 청자높임의 등분이 다를 뿐, 뜻과 배치는 낮춤의 {-나}와 같으며 주로 동사에 쓰인다. (이상 허용, 1995:713)

이와 같이 허용(1995:680) {-나}는 동사에 쓰이는 {-느나}와 형용사, {-이다}에 쓰이는 {-으나}의 줄임이 합류한 어미로 보고 있는데, 선행어간의 품사에 제약이 없다고 한 점이 특이하다. 즉 {-나}에 동사, 형용사 어간이 쓰이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논자와 차이가 난다. 한편 고창운(1992:346)에서는 {-르까요}, {-나가(나)}는 {-외}를 {-르까(요)}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 세 형태가 상대높임을 나타내면서 항상 의문형에만 쓰이는 어미라는 점에서 한데 묶어 비교하였다. 그리고 {-르까}는 추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반면, {-나가, -나}에는 단순한 물음 이외에 다른 뜻이 덧붙여지지 않으며, {-나가}와 {-나} 사이에서는 상대물음으로 쓰일 때 나타나는 청자높임의 등급도 같으며, 혼자물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이형태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나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형태결합 정보와 기능에 대해 사전과 문법서마다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구어말뭉치를 대상으로 구어 상에서의 이들 어미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려 한다. 구어말뭉치는 약 200개의 파일, 총 805,652어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상대화, 강연, 연설, 즉흥적 독백 등 다양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가 녹음 전사되어 있어 현재 한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알 수 있다.⁹⁾

3. 실제 말뭉치 분석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나가}의 변이형은 {-은가}와 {-는가}이며, {-나가}를 {-나}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룬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나가}나 {-나}형 어미를 하계체로만 본 것도 있으나, 이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으며, 형태결합정보의 기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나가}형 어미에는 {-는가, -나가, -은가}를 포함하고 {-나가요}형 어미에는 {-는가요, -나가요, -은가요} 어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려 한다.

3.1 {-나가}형 어미의 실제 사용

{-나가}형 어미는 {-는가}, {-은가}를 아우르는 대표형으로서, {-는가}에는 동사 어간이나

9) 그러나 구어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는 다른 자료를 참조할 예정이다.

‘있다, 없다’ 등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았-, -겠-} 뒤에 붙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ㄴ가}가 {-시-} 뒤에 결합된다는 것은 모든 사전에서 동일하나,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은가}와 {-ㄴ가}는 형용사와 ‘이다/아니다’ 뒤에서 음운적인 변이형으로 선택되어 사용된다고 했다. {-ㄴ가}형 어미는 구어말뭉치에서 791회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ㄴ가} 598회 > {-는가} 168회 > {-은가} 25회” 등의 빈도수를 보이는데 {-ㄴ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이다, 아니다} 다음에 결합한 형이 많았기 때문이다.

- (12)a. 고전 문학 플러스 역사잖아요? 근데 왜 고전 문학의 역사를 논의해야 하는가.
- b. 네. 어~ 그 다음에, 각 술의 알콜 도수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어떻게 구분 하까요?
- c. 학교까지 오는데 내가, 과연 현대기아 차가 얼마나 많은가, 좌석버스에서 계속 봤어 밖에를,
- d. 그~ 옷에 대한 것도 좀 알아 봐야 된다. 어디가 좋은가,
- e. 어머 이게 이게 앞부분이 그렇게 두 개의 반지 탑이 그리 긴가, 뒷부분을 넘 겠더니 까매,
- f. 아까도 보면은 거기 뭐~ 깔따구? 으흠. 그게 그게 모긴가? 모기 같애요.

예 (12)에서 (a,b)는 동사어간에 {-는가}가 결합한 것이고, (c,d)는 형용사 어간에 {-은가}가 결합한 것이며, (e,f)는 형용사 중 ‘르’로 끝나는 ‘길다’와 ‘이다’뒤에 결합한 예이다.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는가}에 결합하는 것으로는 ‘있다, 없다’ 어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가다, 가지다, 걸다, 나다, 나오다, 이겨내다, 내려가다, 느끼다, 되다, 들어가다, 오다, 연결되다, 즐기다, 하다, 맞다, 받다, 보다, 살다, 사라지다, 사용하다, 생각하다, 이용하다, 일으키다, 읽다, 정돈되다, 오다, 연결되다, 주다” 등과 같은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선어말어미 {-시-, 겠-, -었-}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a. 나중엔 진짜 우리가 안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두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자고 제발.
- b. 그니까 국어정보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딴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학과 학교도 있는가 라고 찾아서
- c. 말은, 일 분에? 몇 타 정도의 속도를 가지겠는가. 빨리 얘기할 때 몇 타?
- d. 이런 자립형 사립고는, 그 학교가? 충분한 재정적 자립도를 갖추었는 갖추었는가?

그런데 구어에서의 {-는가}의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 첫째는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는가}형 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이다. 청자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

하는 직접 질문'의 용법인데, 이 문장들은 모두 청자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서 의문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14)a. 고걸 찾으시면 돼요. 말은, 일 분에? 몇 타 정도의 속도를 가지겠는가. 빨리 얘기할 때 몇 타?
 b.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를 조사하고 우리말로 바꿀 방안은 없는가? 왜 언제 사용하는가?
 c.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d. 그것을 조사해 보면서, 우리 지금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는 곧 뭐하고 통하겠어요?

둘째는 문제제기이다. 모든 의문문이 청자의 대답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15)처럼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의 용법을 문제제기라고 칭한다.

- (15)a. 위로 올렸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고, 밑으로 내렸을 때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이것이 스케일이야. 이 스케일인데, 이 스케일은,
 b. 예절과 또 대화의 장애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해서 나한테 싸움을...
 c.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d. 뭐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매스컴에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홍보 활동이나 이런 ...

이 예들은 구어말뭉치 중에서 모두 강의 담화에서 옮긴 것인데, 화자인 강연자가 청자인 청중에게 의문의 형식을 빌려 {-는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대답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적인 대화에서도 사용되지만, 주로 강의나 강연과 같이 화자가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발화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된다. 특히 강의나 강연의 경우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특이하게도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15)와 같이 해라체의 {-는가}를 사용하여 질문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청자에게 질문하는

10) {-나}계 어미를 다룬 이동석(2012)에서 {-나}의 기능과 {-는가}형 어미의 기능이 대부분 유사한데, {-나}형 어미와 {-는가}형 어미의 비교는 후고로 미룬다.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게 자문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화하여 던진 후 자신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다.

셋째는 인용을 할 경우이다. 인용문은 직접 인용문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인용보문소 {-라고, -하고} 등으로 이끌고, 간접 인용문일 경우 주어와 시제, 부사어, 그리고 종결어미 등의 중화를 거쳐 인용보문소 {-고}로 이끈다. 그런데 구어에서는 인용문과 인용절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별도의 장치가 없어서 문맥을 참고해야만 한다.

- (16)a. 끝을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얼마큼, 이해하고 계시 는가 해서, 몇 가지들을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 b. 그럼 우리가 과연, 옷을 잘 구매했는가, 옷을 우리가 어떻게 구매해야지 좋은 건가, 하는 걸 교과서를 통해서
- c. 이게, 인간의 언어가, 본능이라고 할 때, 왜 인간이 오류를 범하는가? 라는 문제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 d. 그 기능에 충실하니까 그 나름대로 존중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저~ 누님도 한마디 하시죠.

(16)에서 보듯이 {-ㄴ가}를 이끄는 절이 {-해서, -하는, -라는, -라고} 등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의문문을 이끈다. 이 경우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경우로서 문어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표지 ‘-라고, -하고’ 등을 사용하지만, 구어에서는 인용문에 별도의 문법적 장치를 부여하지 않고 앞뒤 문맥에 의해 인용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넷째는 {-가, -를, -에, -부터} 등과 같은 조사에 이끌리어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의문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ㄴ가}가 어미 뒤에서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바로 안긴 경우이다.

- (17)a. 보고란에서 무엇이 나오고, 기획부 보고란에서 무엇이 나오고, 학술부 보고란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 b.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쓸 수 있는 문자의 수가, 얼마가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c. 가기 전에 한 달 동안은, 근까 그거를 어떻게 가게 됐는가부터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 d. 다섯째로, 말을 잘 하려면, 무엇을 말하는가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는가 보다, -는가 싶다, -는가 하다}와 같이 ‘보다, 싶다, 하다’의 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 (18)a. 근데요,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는가 봐요. 아 저는요, 손지영이요.
 b. 시궁쥐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큰 폭포수 아래로 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c. 심오가 아마 심이 십팔 ... 어, 스케일, ... 스케일을 변하게 하는가 보다, 이거 없는데,

마지막으로는 선택형 질문을 하는 경우인데, (19)와 같이 의미적 대응쌍을 가진 {있다, 없다}를 {-ㄴ가}가 이끌고 있다.

- (19)a. 과연 그 당사자만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b. 다른 사람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저작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판단도 하시라고,

이와 같이 {-ㄴ가}형 어미의 사용에 대해 살폈는데, 이는 격식체 중 하계체가 아닌 해라체로 사용된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ㄴ가}형 어미의 해라체의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 없었으나, 현대 구어말뭉치에서 사용되는 {-ㄴ가}형 어미는 {-ㄴ}형과 같은 해라체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

3.2 {-ㄴ가요}형 어미의 실제 사용

구어말뭉치에서는 {-ㄴ가요}형 어미는 총 79회가 나타났는데, 이 중 {-는가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¹¹⁾ {-은가요}는 1회, 나머지는 모두 {-ㄴ가요}의 형태로 나타났다.¹²⁾ 구어말

11) 세종계획 문어말뭉치 중 준구어체인 소설에서는 {-는가요}가 총 50개가 나타났다. “날아가다, 내리다, 되다, 마시다, 모르다, 묻다, 맞다, 존재하다, 하다” 등과 같은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있-} 뒤에서 결합하는 경우도 많았다.

- a. 얼마나 오래 꺼졌다가 켜진 불빛인지 그리도 먼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며 날아가는가요.
 b. 속도의 시대에 전화와 컴퓨터 통신이 보급되면서 연서(戀書)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가요?
 c. “예? 평사리에 와 있다구요?” “음.” “거긴 왜요! 거긴 왜 갔는가요!”
 d.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뭐. 그나저나 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가요.”

12) {-은가요} 역시 구어말뭉치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종계획 문어말뭉치 중 준구어체인 소설에서는 자주 보인다. {-은가요}는 ‘괜찮다, 높다, 많다, 옳다, 좋다, 싫다, 싫다’ 등과 같은 형용사 어간에 가장 많이 결합되거나 {-지 않-}과 같은 부정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a. “별 하시는데요.” “뜨내기 일꾼이지 뭐겠소.” “별이는 괜찮은가요?”
 b. 준이는 유난히 겁이 많은가요?
 c.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뭉치에서 {-ㄴ가요}에 결합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ㄴ가요}는 {이다/아니다} 어간에 결합한 것이 가장 많았고, “가깝다, 가능하다, 계시다, 다르다, 동등하다, 심각하다, 중요하다, 그렇다” 등과 같은 형용사 어간에 결합한 것은 18%이며, 나머지는 2.6%는 선어말어미 {-시-}에 결합한 것이다.

(20)a. 선생님이 가까운가요?

- b. 주말이나 평 평일 오후? 예약해 놓으면 뭐~ 일주일 후에 가능한가요?
- c. 이렇게 들으십니까, 어느 게 옳은 건가요?
- d.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 e. 그런 거 같잖아, 답이냐, 그치, 계란이냐, ... 아오 지금 몰라서 그런가요?
- f. 요것이 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항 대학하고는 좀 다른
가요?
- g. 살이 쪼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말 실렌가요. 근데 살이 더 빠졌습니다.

즉 {-ㄴ가요}형 어미 중 {-은가요}는 (20a)와 같이 1회만 나타났고, 나머지는 (20b-g)처럼 {-ㄴ가요}형이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이다/아니다} 어간 뒤에 결합되는 유형이다. {이다/아니다} 뒤에서는 {-나}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이 유형이 {-ㄴ가요}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1)a. 그러구 이제 아마 시월 말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수능을 한 십팔 일인가 앞두구

- b. 서로 다르면은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가요? 저~, 그~,

그 외에도 {-던가요} 유형도 있는데, ‘말이었던가요, 얘기했던가요’ 등과 같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 다음에 결합한 것이다.

3.3 {-나}형 어미의 실제 사용

어미 {-나}가 실제 구어말뭉치에서 사용된 예는 총 5823개로서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실제로 (22)와 같이 ‘걸리다, 가다’와 같은 동사 어간은 물론 ‘괜찮다, 같다’와 같은 형용사 어간에도 쉽게 결합되며 선어말어미 {-었-, -시-} 등에도 결합된다. 단지 {이다, 아니다} 뒤에는 결합되지 않는다.

-
- d. 이것도 말아야 옳은가요. 정임의 헛그림자까지도 끌어 버려야 옳은가요.

- (22)a. 근데 인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왜 그러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나? 아무튼 그래 가지구.
- b. 의정부서 오XX 일찍 가면 더 가깝고 ... 아 논산에서도 전방으로 가나? 논산에서 가, 가?
- c. 인젠, 병장 정도, 병장 정도 ... 솔직히 뭐~, 병장들도 옛날 같나?
- d. 별 수 없어 그런 건. 어. 아니 얼굴을 깎았나?
- e. 좀 이렇게 뭐야 동생한테 줘어 사는 거 같구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시나 봐.

어미 {-나}의 기능을 살펴보면 {-나}와 유사한데 첫째는 직접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관적 장면에서 청자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 (23)a.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학문이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학과라고 그려셨나? 경영은 좀 연관이 없을 거 같은데? 혹시 정치학과도, 없어요, 연관이.
- b.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괜찮나? 이렇게 나오는 예. 뭐~ 저희 그~ 대학원 후텐데,
- c. 선인장 가지구두 만든다. 그러데 냉면을. 그런 이상한 재료 넣구 먹어두 괜찮나? 냉 응.
- d. 인젠, 병장 정도, 병장 정도 ... 솔직히 뭐~, 병장들도 옛날 같나? 나 담배꽂초 내가 줬었다, 간부가 하도 많아 갖고,

그런데 (23)처럼 어미 {-나}가 직접질문을 하는 경우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나 해라체는 물론 비격식체인 해요체나 해체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어미 {-나}가 혼자물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상대높임의 종결어미가 쓰이는 가운데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질문 제기 혹은 자기 대답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청자가 있는 상관적 장면에서도 사용되지만 자신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형식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다.

- (24)a. 두 시 삼십오 분이야 지금. 어 어유 씨. 이걸 잘못했네. 건드렸나? 되는 거 같다 이제. 아 아, 된다. 된다 된다.
- b. 내가, 인터넷에서 해 가지구, 월요일날 인터넷 되는 데 할 수 있나? 맞다, 인터넷 되는 데서 찾아야지, 바로 그날, 파워포인트, 어느 정도 ...
- c. 앰프가, 삼십 헤르쯔용 앰프 따로 있고, 삼 키로헤르쯔용 앰프 따로 있나? 아니지. 그까 이놈 하나에서, 스피커 연결돼 있기 땀에,
- d. 개 어디로 간 거야? 좋은 데로 갔나? 무슨 대학교 갔겠지.

예 (24)는 상관적 장면 속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혼자 질문하고,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대답하는 경우에 쓰인 것이다. 또한 구어말뭉치에서는 인용의 형식을 명확히 취하지는 않았으나 인용절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예문도 있는데, 특히 강연이나 독백체의 담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셋째는 (25)와 같이 ‘-에, -를’ 등의 명사절을 이끄는 성분절을 이끄는 데 사용된다.

- (25)a. 정신과 문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걸렸나를, 또 보시고, 저희가, 요것도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 주는 작업을, ...
- b. 그런 문화 차이에 대해서 발표를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을 느꼈나를 발표를 시키는데, 거기에는 인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 c. 자 이런 건, 대충, 보면 돼. 전체 이 소비가 얼마나 늘었나에 대해, 음?
- d. 지금 환경도 분석했다, 어디서 어떻게 됐나를, 마구 생각을 하느라고,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넷째, ‘-나 보다, -나 싶다, -나 하다, -나 의심하다’에서 ‘보다, 싶다, 하다, 의심하다’ 등과 같은 절을 이끌고 있다.

- (26)a. 어느 선생님 그~ 동호회에서, 어느 약사 분이셨나 봐요, 와서 자랑하드래요.
- b. 전에 독자가 그랬거든. 이거 금방 폐간되고 그런 거 아니죠? 정말? 걱정되나 봐.
- c. 좀 이렇게 뭐야 동생한테 쥐어 사는 거 같구 그러니까. 그제 걱정되시나 봐. 걱정하지 말라구.
- d. 컵 안 바꿔 주나 아줌마. ...까먹었나 보다. 혼내야지. 돈 내라구?

(26)과 같이 ‘보다, 싶다, 하다’ 등과 같은 동사의 내포절을 이끄는 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섯째는 선택의문문을 이끄는 경우 사용된다.

- (27)a. 한 번 검사를 받구, 예. 함 향 그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현대요. 예. 근데 그제 오십 퍼센트가, 죽어야만, 다음에 진료를
- b. 응 그랬겠다. 죽었나 살았나 내가 연락을 한 번 해 봤지. 나아 뭐 늘 ...

이와 같이 어미 {-나}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구어말뭉치에서 쓰인 어미 {-나}의 경우 화계체의 종결어미로 쓰인 것이 아닌 해라체 종결어미로 쓰인 것으로 {-나}와 {-ㄴ가}형 어미와 유사하다. 특히 어미 {-나}의 유형 중에 문제제기를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는 형식으로 청자가 있는 상관적 장면에서도 자주 쓰였다. 따라서 어미 {-나}

를 해라체 종결어미로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4 {-나요}형 어미의 실제 사용

어미 {-나}에 {-요}가 결합된 {-나요}의 결합 정보부터 살펴본다. 앞선 연구에서 {-나요}는 ① 동사의 어간 ② ‘있다’, ‘없다’의 어간 ③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는다고 했는데, 구어말뭉치에서의 {-나요}의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구어말뭉치에서의 {-나요}의 선행 결합 형태

선행 요소	구어말뭉치	
동사 어간	49(37.34%)	
형용사 어간	23(17.5%)	
N+이다, 아니다	2(2%)	
선어말어미	-었-	27(20.6%)
	-시-	8(6.1%)
있다	있-	13(10%)
	없-	8(6.1%)
없다	계시-	1(0.8%)
합계	131(100%)	

{-나요}가 결합되는 것은 ‘겹치다, 듣다, 들어가다, 배우다, 맞다, 되다, 드러나다, 모자라다, 올리다, 부르다, 하다, 붙다, 빠지다, 쓰다, 잇다, 좋아지다, 나빠지다, 그러다’와 같은 동사가 37.34%로 가장 많았으며,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같다, 멀다’와 같은 형용사 어간이나 ‘있다/없다’의 어간과도 결합된다. 구어말뭉치에서는 131회의 {-나요}가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결합되는 것은 동사 어간으로 37.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전의 기술과 달리 형용사 어간에서도 17.5%가 나타나고 있고, 적은 수이지만, [N+이다]의 경우에도 {-나요}가 사용되고 있다.

- (28)a.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상대화 효과라고 이야기 하는데 ... 맞나요?
 b. 화정 화정 사는구나. 아 맞아 화정 거기. 머나요? 가깝죠, 화정하구 대화하구,
 c. 정서의 다른 부분을 자극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요?
 d. 위아래로. 현대 물리를, 여러분 배우니까? 현대 물리 배우나요?
 e. 목소리만 나오면, 재미없어 하나까. 나는 많이 했거든 이거? 어? 몇 명이나요?¹³⁾

13) [N+이다] 뒤에는 일반적으로 {-나 가형}이 쓰여 ‘몇 명인가요?’로 쓰여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어말뭉치에서는 (마)와 같이 {-나요} 형태가 나타난다.

- f. 주로, 무슨 책을 읽으세요? 그러거나, 집사님은 주로, 어느 때 책을 보시나요?
- g. 빨간 줄무늬에, 까만색. 까만색으로서, 네. 네, 기록됐나요? 기록. 전반 기록됐죠?

둘째, 앞서 살핀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어미 {-나요}를 사용한다고 기술했다. 이 글에서 분석한 구어말뭉치는 발화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보조적으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세 편의 드라마 대본을 참고로 하여 {-나요}가 여성형 종결어미인지를 알아보았다.¹⁴⁾

표 4. {-나요}의 남녀 사용 비율

	남성		여성	
	공부의신	양춘삼 4회	수정 2회	이은유 6회
내이름은 김삼순	강 2회		삼순 10회	
	진현 3회		이영 1회	
	오지배인 1회		봉숙 1회	
신사의 품격	맞선남 3회		이수 7회	
	도진 3회		세라 2회	
	태산 2회		간호사 1회	
	콜린 2회			
	남선생 2회			
		22회(42.3%)		30회(57.7%)

<표 4>와 같이 세 편의 드라마에서 여성 화자가 57.7%로 더 많이 {-나요}를 사용했지만, 남성 화자도 42.3%로 {-나요}를 사용하고 있다.

(29)강:(끄덕)

양춘삼: 정말 그 영감이 부탁했나요?

강: 그렇습니다. <드라마 “공부의신” 중에서>

(30)a. 맞선남: (너무 열심히 듣는다) 그래서 다 먹어봤나요?

삼순: 아뇨. 아쉽게도 딱 하나를 못먹었지 뭐예요.

b. 삼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꿨는지,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그건 왜 안 물어보세요?

진현: (삼순을 본다)?.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 중에서>

14) 가장 좋은 자료는 실제 구어말뭉치를 살펴보는 것이겠지만, 현재 말뭉치에서는 발화자의 정보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어서 차선책으로 드라마 대사를 살펴본 것이다. 드라마 대사는 실제 언중들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므로 일반 언중들의 언어사용의 양상을 대변해 준다.

(31)a. 동협: 경고하는데 아저씨, 이제부터 말 짧으면 좀 곤란해.

도진: (동협 눈 뚫어져라 보며) 아, 내가 그랬나요?

<드라마 “신사의품격” 중에서>

b. 콜린: 근데 제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들이야, 하고 친자확인이 되면, 그 사람 재산이 나한테 상속되나요? <드라마 “신사의품격” 중에서>

즉 (29)~(31)과 같이 {-나요}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기는 하나, 여성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 편의 드라마에서 ‘양춘삼, 진현, 맞선남, 도진, 태산’과 남자역할의 대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미 {-나요}가 여성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5 {-는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의 변별적 특성

이상에서 구어말뭉치에서의 {-는가}, {-나}형 어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형태결합 면인데, 사전의 기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았다. 이중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형용사 어간의 음운적 조건에 따라 {-는가}, {-은가}가 선택된다는 것과 [N+이다, 아니다] 다음에 {-는가}가 결합된다는 것이다.¹⁵⁾ (32)와 같이 [N+이다, 아니다]의 경우는 {-는가}형 어미는 가능하나 {-나}형 어미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32)a. 그 남자가 {사장인가요/*사장이나요}, {아닌가요/*아니나요}?

b. 이렇게 시들어 가는 나를 그냥 둘 {건가요/*거-나요}?

c. 이제 사회 해결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거-나요}?

또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33)에서 보듯이 선어말어미 {-겠-} 다음에는 {-나}형 어미의 결합이 어려우며, {-더-} 뒤에 {-나}형 어미의 결합 역시 어렵다.

(33)a. 지금 하는 이런 소리를 누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요/*있-겠-나요}?

b. 무지무지하게 크든가, 세든가 어쨌든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요?/*않-겠-나요}?

c. 그러 말을 {했던가요?/*하-였-더-나요}?

하지만 ‘있다, 없다’나 동사 어간 뒤, 그리고 선어말어미 {-었-, -시-} 뒤에는 {-는가}형과 {-나}형 어미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

15) 물론 (26마)처럼 [N+이다]에 {-나요}가 붙은 유형도 보이나 아주 적은 빈도수를 보인다.

- (34)a. 그리도 먼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며 {날아가는가요/날아가나요}?
 b. 식당에 자리가 {없는가요/없나요}?
 c. 거긴 왜 {갔는가요/갔나요}?
 d. 큰택은 안 {오시는가요/오시나요}?

둘째, 이와 관련하여 사용빈도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가 변하고 있어 현재의 사전이나 문법서의 기술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의문형 종결어미의 변화 양상은 매우 역동적인데, {-ㄴ가}, {-나}형 어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핀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는 언어생활을 하면서 생긴 언중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1)~(4)의 설명을 보면 {-ㄴ/은가}형 어미는 형용사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어말뭉치에서의 실제 쓰임을 보면 {-ㄴ/은가}형 어미가 형용사에 쓰이고 {-나}형이 동사형에 쓰인다는 설명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표 5. {-ㄴ가}, {-나}형 어미의 사용 빈도수

	{-ㄴ가}형 870회		{-나}형 5954회	
	{-ㄴ가}	{-ㄴ가요}	{-나}	{-나요}
빈도수	791회	79회	5823회	131회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를 비교해볼 때 구어말뭉치에의 사용빈도수는 “{-나} 5823회 > {-ㄴ가}형 어미 791회”로 어미 {-나}가 7배나 많은 사용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나}형 어미가 더 구어적 쓰임을 갖는 형태이고 형태적 결합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일반 언중들의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온라인 가나다>이다. 2008년 10월 8일 이후 61994건의 질문 중에서 {-ㄴ가요}형 어미로 질문한 것은 총 2875건이며, {-나요}로 질문한 것은 1922건이다. 단순한 수치만 보면 {-ㄴ가요}형이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나 {-ㄴ가요}형은 가능하나, {-나요}는 결합이 불가능한 ‘이다, 아니다’ 형태로 질문을 한 것이 90% 이상이 되므로, {-ㄴ가요}형이 더 자주 쓰인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수적으로는 {-ㄴ가요}형이 더 많지만, <온라인 가나다>의 특성상 ‘우리말인가요, 명사절인가요, 표현인가요, 비문인가요, 외래어인가요, 표준어인가요, 형용사인가, 홀문장인가요, 아닌가요’ 등과 같이 {N+이다, 아니다} 유형의 활용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있다, 없다’ 등과 ‘되다, 쓰다, (사용, 말, 발음)하다, 맞다’ 등과 같은 동사 어간에는 {-ㄴ가}형 어미와 {-나}형 어미에 모두 결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사용례를 보면 <표 6>과 같다.

16) 강범모 외(1998)에서 세종균형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종결어미의 사용 빈도를 보면 “11위 ㄴ가 9486 > 15위 는가 5927 > 23위 나 2902 > 44위 나요 888 > 52 은가 760 > 59 ㄴ가요 634 ”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어말뭉치이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온라인 가나다에서의 {-나요}, {-ㄴ가요}형 어미의 사용례

	{-나요}		{-ㄴ가요}	
있다/없다	있나요	382	있는가요	7
	없나요	78	없는가요	1
동사 어간	되나요	237	되는가요	4
	하나요	345	하는가요	1
	사용하나요	9	사용하는가요	0
	쓰나요	41	쓰는가요	3
	보나요	7	보는가요	0
	맞나요	564	맞는가요	14
-었-	되었나요	20	되었는가요	0
-시-	있으시나요	0	있으신가요	2
		1,683(98.13%)		32(1.86%)

위에서 보면, {-ㄴ가요}와 {-나요}가 모두 가능한 ‘동사, 있다, 없다’의 어간 뒤나 선어말 어미 {-었-} 뒤에는 {-나요}형이 98%이상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옳다, 괜찮다, 가능하다, 무방하다’와 같은 형용사 어간에서도 “옳은가요 13회, 괜찮은가요 3회, 가능한가요 52회, 무방한가요 1회”와 같이 {-ㄴ가요}형이 주를 이루지만, “옳나요 2, 괜찮나요 1, 가능하나요 1, 무방하나요 1” 등과 같이 {-나요}도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구어말뭉치에서는 {-ㄴ가}형 어미보다는 {-나}형이, {-ㄴ가요}형 어미보다는 어미 {-나요}가 훨씬 더 많이 쓰이며, 어미 {-나}에는 동사 어간뿐만 아니라 형용사 어간도 빈번히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는가}, {-은가}를 포함한 {-ㄴ가}형 어미와 {-나} 어미는 하계체뿐만 아니라, 해라체종결어미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 일부의 사전에서 화계가 중화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구어말뭉치에서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 혹은 해체를 사용하다가 혼잣말처럼 {-ㄴ}다, -냐, -라, -지}와 같은 해라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해라체 어미는 문어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구어체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구어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수행을 관찰해 보면,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혼잣말 형식으로 쓰이고, {-ㄴ가}, {-나}형 어미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자료로 삼은 구어말뭉치에서는 하계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¹⁷⁾ {-ㄴ가}형 어미와 {-나}어미는 해라체에서 더 자주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가}형 어미와 {-나}는 격식체 중에서 하계체와 해라체 종결어미로 분리하여 봄이 타당할 것이다.

17) 하계체로 볼 수 있는 것은 (23가)의 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학문이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학과라고 그러셨나? 경영은 좀 연관이 없을 거 같은데? 혹시 정치학과도, 없어요, 연관이.”와 같이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속에서 한 청자에게 단독으로 질문하는 경우만을 들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 중 {-ㄴ가}형, {-나}형 어미의 결합분포와 사용 실태를 실제 구어말뭉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현재 규범문법에서는 어미 {-ㄴ가}형 어미와 {-나}는 하계체의 종결어미에, {-ㄴ가요}, {-나요}는 해요체의 종결어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형태결합 면에서 ‘형용사 어간 뒤에는 {-ㄴ가}형 어미가, 동사 뒤에는 {-나}형 어미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서 살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구어말뭉치 중에서 {-ㄴ가}형 어미에는 791회가 나타나 5823회가 나타나는 {-나} 어미에 비해 훨씬 낮은 사용 빈도수를 보인다. {-ㄴ가}형 어미는 구어말뭉치에서 직접 질문, 문제제기, 인용절을 이끌거나, 명사절을 이끌거나, {-ㄴ가 보다, -ㄴ가 싶다, -ㄴ가 하다}와 같이 ‘보다, 싶다, 하다’의 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거나 선택형 질문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둘째, 구어말뭉치에서는 {-는가요, -은가요}를 포함한 {-ㄴ가요}형 어미는 총 79회가 나타난다. 이 중 {-는가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은가요}는 1회이고 나머지는 {-ㄴ가요}의 형태가 나타나며, 해요체에서 질문을 할 때 쓰인다. 셋째, {-나} 어미는 구어말뭉치에서 총 5823개가 나타나는데 동사 어간은 물론 ‘괜찮다, 같다’와 같은 형용사 어간에도 쉽게 결합되며 선어말어미 {-았-, -시-}등에도 결합된다. 어미 {-나}도 직접질문을 하거나, 질문 제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 ‘-나 보다, -나 싶다, -나 하다, -나 의심하다’ 등에서 절을 이끄는 기능, 선택의문문을 이끄는 경우로 사용된다. 넷째, {-나요}는 구어말뭉치에서 131회 나타나며 형태결합에는 제약이 없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어말뭉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본다면 {-ㄴ가}형 어미에서 {-나}형 어미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어말뭉치 속에서 {-ㄴ가}와 {-나}형 어미는 해라체로 더 자주 쓰이고 있어 격식체 하계체, 해라체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ㄴ가요}형 어미와 {-나요}는 비격식체 해요체로 상정해야 한다.

이상에서는 {-ㄴ가}, {-나}형 어미에 대해 구어말뭉치를 기반으로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 보았다. 19세기 이후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이들 어미가 어떻게 그 기능을 갖게 되었는가와 {-나}형 어미와의 사용 양상과 의미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참고문헌

- 강범모 외. (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3-57.
 강범모 외. (1998). *한국어 사용 빈도*. 서울:한국문화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고려대 출판부.
 고영근 외. (2002). *문법과 텍스트* 서울:서울대 출판부.

- 고영근. (1974). 현대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18-157.
- 고영근. (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 관계. *국어학신연구*, 서울:탑출판사.
- 고창운. (1992).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김승곤 엮음). 서울:박이정.
- 권재일. (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 방법*. 서울:서울대 출판부.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커뮤니케이션.
- 김수태. (2006). 물음법 씨끝의 체계. *한글*, 274. 63-97.
- 남기삼·고영근. (1985/200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탑출판사.
- 박종갑. (1984). 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성(1). *한민족어문학*, 11. 159-180.
- 박종갑. (1986). 의문법 어미의 종류에 따른 의문문 유형의 의미 기능. *한민족어문학*, 13. 397-419.
- 이동석. (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냐’계 어미 교육. *새국어교육*, 98. 461-493.
- 이익섭·채완. (1999/2006). *국어문법론강의*. 서울:학연사.
- 연세대 언어정보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서울:두산동아.
- 연세대 언어정보원. (2005). *한국어학습자사전*. 서울:두산동아.
- 장경현. (2003). 문어/문어체, 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서론. *한국어의미학*, 13. 143-165.
- 최현배. (1937/1984).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 한글학회. (1986). *새우리말큰사전*. 서울:샘문화사.
- 한길. (2004). *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 서울:역락.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샘문화사.
- 온라인 가나다 http://www.korean.go.kr/109_new/minwon.

안주호

331-7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전화: (041)580-3564

이메일: ahndream@nsu.ac.kr

Received on March 31,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 2015

Accepted on June 25, 2015